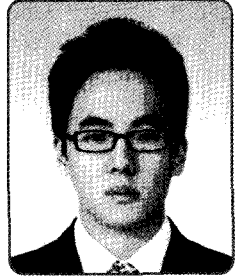


기업 M&A로 인한 표준특허 현황의 변동



이준하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센터

1. 들어가며

1. 기업 인수·합병(M&A)이란

M&A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에서 사용하는 Mergers and Acquisitions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합병(Mergers) 및 인수(Acquisitions)이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포함하는 다의적인 용어로서 경제적, 학문적으로는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 회사가 다른 회사 자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경영지배권(control of management)을 획득함으로써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전부를 말한다.

IMF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실제로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세계열강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문은 과감히 버리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은 더욱 집중, 육성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M&A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약육강식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법이 바로 M&A인 것이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의 M&A

삼성전자, LG전자가 본격적으로 M&A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반도체, 가전 등 회사 내 사업부문들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쉽지 않자 M&A를 통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직접 CEO들이 M&A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불황으로 침체된 세계 IT시장에 새로운 '돌풍'이 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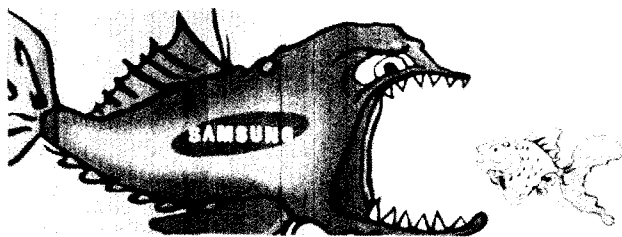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LG전자가 M&A에 적극적인 것은 무엇보다 기존 사업부문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삼성전

자는 매년 2배씩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 선도력을 기반으로 후발업체와의 격차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의 극심한 불황 속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총괄 매출은 2005년 1분기 4조4800억원에서 2009년 1분기 4조39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선도 기술 확보보다는 양산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실속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 기업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등 특허기술 기업들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환율상승과 재계약으로 인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메모리카드 전문업체 샌디스크의 경우, 삼성전자가 이미 약 4000여억원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으며, 내년 재계약에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IT업체들의 주가 하락에 따라 샌디스크의 시가 총액이 3조5000억원 정도로 떨어졌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수나 투자를 통한 해당 업체의 특허 확보가 전략적/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기업 간의 M&A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IPR도 그 소유권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IPR과 관련된 통계적 수치가 변화하게 된다. IPR을 획득하는 기업의 IPR 보유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 기업의 국적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는 IPR의 수치 또한 증가한다. 반대로 피 M&A 대상기업의 IPR 수치도 변화하게 된다.

표준특허(Essential Patent)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1건으로 인한 로열티 창출이 다른 IPR에 비해 월등히 높고 해당 업계에서 기술주도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기 위한 M&A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업간 M&A가 이루어질 때, IPR 중 특히 표준특허의 권리 이전이 발생한 사례와 이로 인해 변동되는 표준특허 통계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국내기업의 M&A

① LG전자의 Zenith사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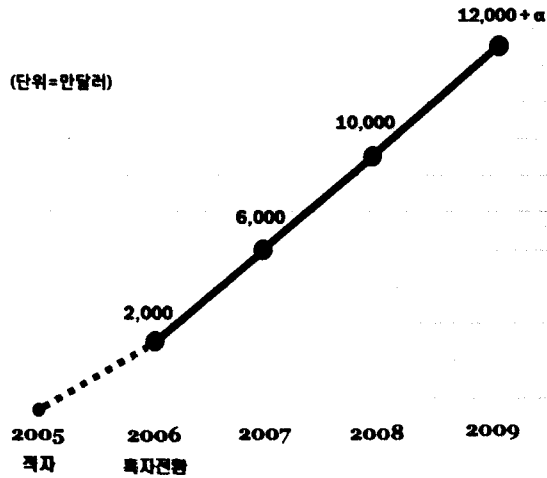
LG전자는 1995년 미국의 가전업체인 Zenith사를 6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 초기 경영 실적이 나빠 “비싼 돈을 주고 애플단지를 사들였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실제로 Zenith사는 LG전자에 인수된 이후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해 인수·합병(M&A) 실패 사례로 꼽혔다. LG전자는 10년간 구조조정 비용에 자산 매각처분 손실자금, 자산평가손실까지 1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고도 회생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LG전자와 Zenith사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DTV 전송기술인 EVSB가 미국식 DTV 표준으로 채택되고 미국 디지털TV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VSB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Zenith사를 인수한 LG전자는 세계 DTV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앞으로 15여년간 수십억달러의 로열티 수입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식으로 DTV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모두 LG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수입과 함께 경쟁사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술적, 심리적 우위에 서게 됐다.

LG전자는 [그림1]에서 도시된 것처럼 2006년 2000만 달러, 2007년 6000만달러, 2008년에는 1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다. 2009년부터는 모든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고, 또한 미국 DTV위원회에서 휴대폰·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로 디지털TV방송을 송수신하는 기술표준으로 ATSC-M/H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디

지털TV의 경우 판매되는 장치 갯수마다 로열티를 계산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천문학적인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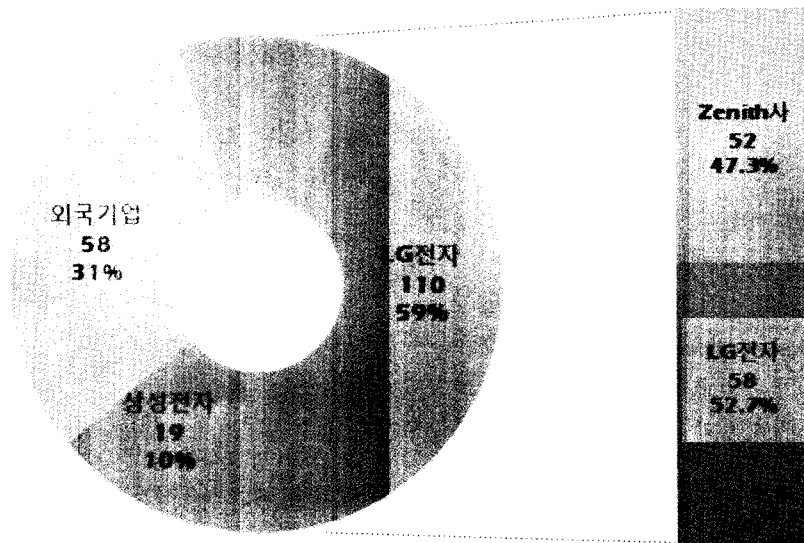


[그림1] Zenith사의 연도별 로열티 수입 및 예상(2009년)액

② LG전자의 표준특허 보유현황

[그림2]는 대표적인 특허풀 라이선싱 대행기관인 MPEG LA¹⁾에 포함된 특허풀 중 ATSC의 표준특허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 특허풀 ATSC²⁾에는 총 187건의 표준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좌측의 원형 그래프는 ATSC의 주요 표준특허 특허권자를 도식화한

것인데 LG전자가 110건, 삼성전자 19건 그리고 기타 외국기업이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LG전자의 표준특허 110건 중에서 LG전자에서 출원된 표준특허는 58건이며, LG전자가 인수한 Zenith사의 DTV표준특허는 52건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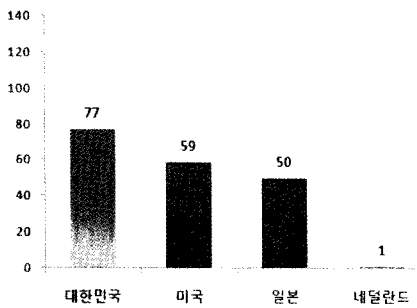
[그림2] 특허풀 ATSC의 표준특허 특허권자

1) MPEG LA(MPEG Licensing Association) : MPEG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다수의 특허권자와 특허에 포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자간의 라이선싱을 대행해주는 세계 최대의 특허풀 라이선싱 대행기관
 2)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ATSC는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을 개발하는 위원회, 혹은 그 표준을 말하며, ATSC의 핵심특허권자들이 MPEA LA내에 특허풀을 구성하여 공동라이선싱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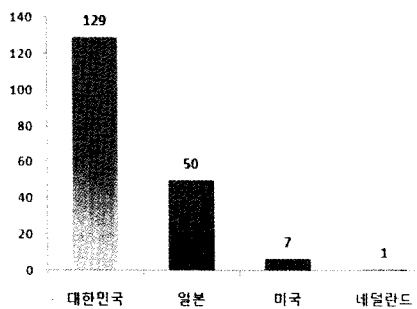


LG전자는 95년 Zenith사를 인수한 이후 200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 함께 특허풀 ATSC에서 50%를 넘는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3][그림4]는 MPEG LA의 ATSC 특허풀 내에서 Zenith사의 표준특허 52건을 LG전자가 포함하기 전과 포함한 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그림3]이 LG전자가 Zenith사를 인수전 미국기업일 때의 통계이고, [그림4]가 Zenith사가 LG전자로 인수된 후를 나타낸 도표이다. 도표상에서 보여지듯이 Zenith사의 표준특허가 포함됨으로써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역량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특허풀 ATSC의 국가별 표준특허 현황(인수전)



[그림4] 특허풀 ATSC의 국가별 표준특허 현황(인수후)

2. 외국기업의 M&A

① Nokia-Siemens Networks사의 M&A

글로벌 통신업체인 Nokia와 Siemens가 지난 2006년 6월 Nokia의 Network Business Group과 Siemens의 통신사업자용(캐리어용) 장비사업 부문을 합병하여 유무선 통신장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Nokia-Siemens Networks'를 설립하였다. Nokia-Siemens Networks는 양사가 각각 50:50의 지분을 갖고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하고 독일 뮌헨에는 지역본사를 각각 설치하였다. 합작사는 IMS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융합 제품을 비롯해 2G, 3G(WCDMA/HSDPA) 시스템, 광대역모바일(Extensive Mobile Core), 유선 브로드밴드, IPTV, 와이맥스와 같이 새로 부상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을 특화하였다.

또한, Nokia-Siemens Networks는 2009년 6월 북미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캐나다의 Nortel Networks의 무선사업부문 대부분을 6억5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번 인수로 차세대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와 CDMA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Nortel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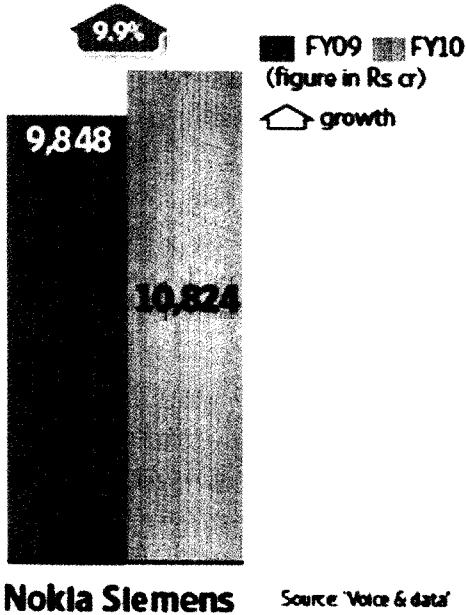


2010년 7월에는 Nokia-Siemens Networks가 Motorola의 무선네트워크 사업부를 12억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번 인수로 Nokia-Siemens Networks가 Motorola의 무선통신 전송기술인 CDMA, GSM 등을 흡수하여 아시아와 북미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Verizon Wireless나 Sprint Nextel 등 경쟁회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3) 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

Nokia-Siemens Networks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9년보다 2010년에 9.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글로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신회사 중 하나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5] Nokia-Siemens Networks사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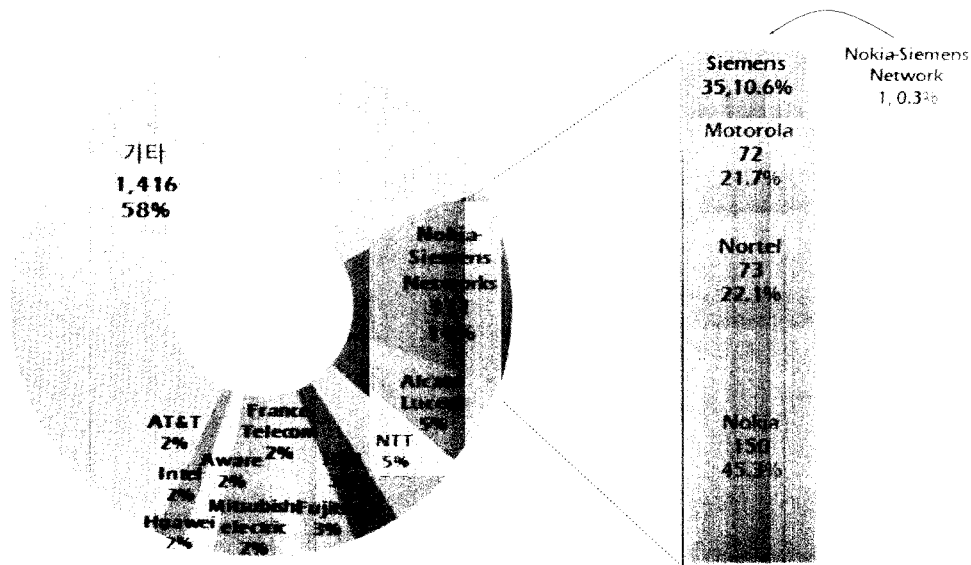
② Nokia-Siemens Networks사의 표준특허 보유현황

[그림6]은 주요 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ITU-T³⁾에 선언된 표준관련특허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ITU-T에는 총 2,278건의 표준관련특허가 선언되어 있다.

좌측의 원형 그래프는 주요 특허권자를 나타낸 것이며, Nokia-Siemens Networks가 331건으로 전체 14%를 차지하여 ITU-T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표준관련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lcatel Lucent가 5%, NTT가 5%, IBM이 3%의 비율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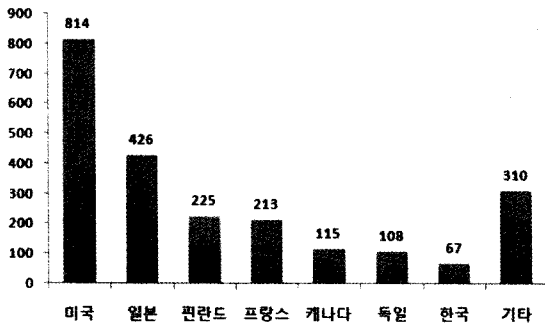
우측의 막대 그래프는 Nokia-Siemens Networks의 특허들 가운데 M&A전의 특허권자를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331건 중에 Nokia 특허가 150건, 2009년에 인수한 Nortel 특허가 73건, 2010년 인수한 Motorola 특허가 72건이며, 합병한 Siemens는 35건 그리고 합병 후 출범한 Nokia-Siemens Networks의 특허가 1건으로 분석되었다.

Nokia-Siemens Networks의 Nortel 및 Motorola의 인수로 이제 각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선통신 사업의 강자로 부각되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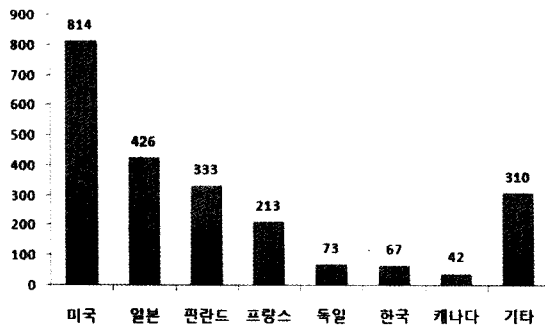


[그림6] ITU-T의 표준관련특허 특허권자

[그림7][그림8]은 ITU-T에 선언된 표준관련특허의 특허권자를 국가별로 정리한 것으로, [그림7]은 Nokia가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전에 현황이고, [그림8]은 Nokia-Siemens 합병, Nortel 인수, Motorola 인수가 모두 종료된 후의 국가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7] ITU-T의 국가별 표준관련특허 현황(인수합병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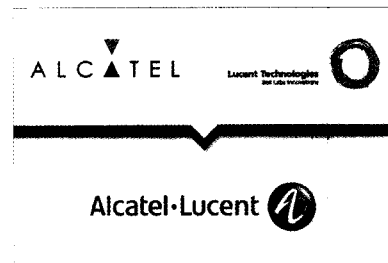


[그림8] ITU-T의 국가별 표준관련특허 현황(인수합병 후)

Nokia가 핀란드 기업이므로 핀란드를 중심으로 나타내었고, 인수합병전 225건을 포함하여 3위권으로 1,2위인 미국과 일본의 역량에 다소 밀리고 있으나, 인수합병 후 333건으로 2위 일본을 바짝 추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③ Alcatel-Lucent사의 M&A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인 Alcatel과 Lucent Technology가 2006년 4월 합병하였다. 합병된 새 법인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며, 시가총액이 큰 Alcatel이 지분 60%, Lucent가 40%를 보유하여 사실상 Alcatel이 Lucent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회사는 합병에 따라 시가총액 360억 달러, 종업원 수 약 9만명, 매출액 25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통합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Alcatel-Lucent가 Nortel의 3G사업부문인 UMTS 라디오 액세스 분야를 3억2천만달러에 인수하여 전 세계 3G 서비스업체 중 4분의 1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Nortel의 특허, 기술 및 직원 1천700여명을 함께 손에 넣게 되었다. 그동안 Nortel의 UMTS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지 못했다.

이번 인수로 Alcatel은 기존의 모바일 라디오 분야의 기술력과 제품군과 더불어, 보다폰이나 오렌지 그룹과 같은 시장 선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며 명성을 누리고 있는 Nortel의 기술력을 더함으로써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2009년까지는 3년 연속 적자행진을 기록하며 시장 선두업체인 Ericsson과의 거리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신진 벤더 Huawei에게도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등 합병 시너지를 살리지 못하는 면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④ Alcatel-Lucent사 표준특허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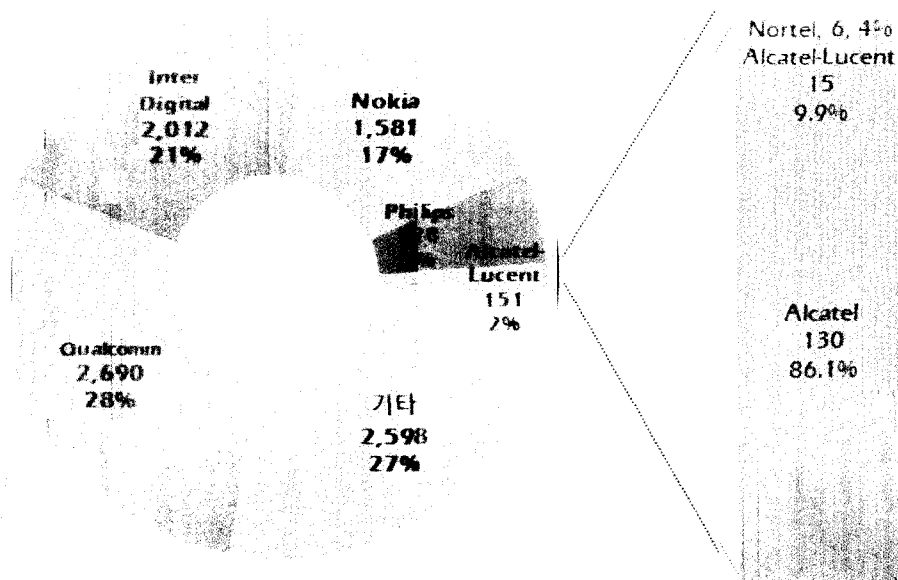
[그림9]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유럽지역의 표준을 전담하는 기구인 유럽 전기통신 표준기구(ETSI⁴⁾)의 UMTS Project부분의 표준관련특허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ETSI의 UMTS⁵⁾ project에 선언된 전체 표준관련특허는 9,560건이고 이중 Qualcomm이 2,690건, InterDigital이 2,012건, Nokia가 1,581건으로 대부분을 이 주요 3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Alcatel-Lucent는 151건의 특허가 선언된 상태이다.

이 151건 중에서는 Alcatel이 130건, 새로 출범한 Alcatel-Lucent가 15건, 새로 인수한 Nortel이 6건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UMTS project에서 Alcatel-Lucent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인수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II. 마치며

근래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간 인수와 합병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도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M&A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미 외국 기업들은 많은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지금도 계속 활발한 M&A활동 중인 것을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특허의 통계에서는 특허 명세서에 나와 있는 출원인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혹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을 때 특허권을 비롯한 지재권의 보유자가 변경되고 또한 그 보유자의 국적에 따라 국가별 통계가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9] ETSI UMTS의 특허권자

4)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유럽 전기통신 표준기구
 5)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 유럽의 3세대 이동통신(3G) 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W-CDMA를 기술표준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다. 유럽과 일본 주축의 이동통신 협력 기구인 3GPP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그 통계는 아무리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뢰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준특허와 관계되는 통계 현황에서는 국가 간 로열티 및 기술역량, 경제 규모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특허의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인수 합병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